

K드라마는 통하는데... 힘 못쓰는 K예능

“자막·문화권 차이 한계, 재미 반감”
유재석 파워 앞세운 디즈니+ ‘더존’
세계 많이 본 TV프로 19위에 그쳐
“포맷 판매 통해 입지 키워나가야”

지난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부터 9일 공개한 ‘수리남’까지 각종 ‘케이(K)드라마’들이 세계를 휩쓰는 사이 예능 콘텐츠들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넷플릭스를 비롯해 디즈니+, 쿠팡플레이 등 다양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예능 콘텐츠를 공격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문화권 차이 등으로 해외에서 인기를 끌기 어려울 것이란 비판적인 전망이 나온다.

●기대작 ‘더 존’도 20위 안팎

그동안 예능 포맷 중에서는 지난해 12월 공개돼 ‘세계 많이 본 TV프로그램’ 5위(플러스패트론)에 오른 넷플릭스 ‘솔로지옥’만이 유일한 글로벌 흥행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8년 넷플릭스 ‘범인은 바로 너!’ 이후 다양한 예능 시리즈가 제작됐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8일 공개된 디즈니+ ‘더 존: 버터야 산다’(더 존)마저 공개 열흘째인 18일까지 ‘세계 많이 본 TV프로그램’ 19위에



배우 이광수, 걸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유리, 방송인 유재석(왼쪽부터)이 출연한 디즈니+ 예능 콘텐츠 ‘더 존: 버터야 산다’가 세계무대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면서 방송가 안팎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머물러 위기감을 키운다. 해외에서도 두터운 팬덤을 보유한 방송인 유재석, 배우 이광수, 걸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유리를 내세운데 비해서는 아쉬운 성적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김공숙 안동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는 18일 “서사가 길고 자세한 드라마에 비해 문화권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는 예능 포맷은 세계의 보편적인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화권마다 각자 다른 ‘웃음 코드’를 핵심으로 삼는 게 예능 포맷의 특징이자 한계”라면서 “자막이나 번역으로는 이를 옮기기 어려운 콘텐츠 자체가 글로벌 흥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MBC ‘무한도전’ 출신 김태호 등 일부 ‘예능 스타 PD’들도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도전했다가 “자막과 문화권 차이”를 걸림돌로 지목하며 티빙, 웨이브

등 국내 무대로 선회한 바 있다.

●“포맷 판매가 현실적 대안”

이 같은 상황에서 리메이크 판권을 비롯한 포맷 판매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MBC ‘복면가왕’, SBS ‘런닝맨’, tvN ‘꽃보다 할배’ 등에 이어 최근 SBS ‘집사부일체’까지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이 미국, 영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서 리메이크돼 현지에서 인기를 끌었다.

해외에서는 노래, 여행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한 한국 예능의 ‘독창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서울 동대문 DDP에서 열린 국제방송영상콘텐츠마켓(BCWW)에서 애덤 스테인먼 워너브라더스 부사장은 “흔한 소재를 변주하는 능력, 미국·영국 포맷의 절반 이하 수준의 저렴한 구매 비용 등을 갖춘 한국 콘텐츠들을 차지하기 위해 해외 제작사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문형 수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글로벌 OTT들도 당장의 성과보다 세계 각국에서 리메이크를 할 수 있는 예능 포맷의 지식재산권(IP) 확장성을 노리고 관련 콘텐츠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추세”라면서 “당분간은 포맷 판매를 통해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입지를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정규 2집〉

블랙핑크 ‘본 핑크’ 새 역사 K팝 걸그룹 첫 밀리언셀러

블랙핑크가 케이팝 걸그룹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

16일 정규 2집 ‘본 핑크’(BORN PINK)를 선보인 블랙핑크가 이날 걸그룹 첫 밀리언셀러에 등극했다. 또 이 미 발매 전 선 주문량으로 200만 장을 넘겨 걸그룹 첫 더블 밀리언셀러까지 예고했다. 이에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도 새로운 기록을 쓸지 관심을 집중시킨다.

18일 한터차트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본 핑크’가 발매 당일 101만1000여장 판매됐다. 한터차트 기준으로 케이팝 걸그룹 역사상 첫날 판매량이 100만 장을 넘긴 것은 블랙핑크가 처음이다. 자신들의 전작 ‘디 앨범’(The Album)의 첫날 판매량 58만9000여장의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내의 차트도 휩쓸었다. 멜론을 비롯해 각종 음원사이트에서 타이틀곡 ‘첫다운’으로 정상에 올랐다. ‘첫다운’은 파가니니의 ‘라 캄파넬라’를 샘플링하고 힙합 비트를 아우르며 클래식과 힙합을 접목했다.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데일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1위에 올랐고, 43개국 아이튠즈 송 차트 1위도 차지했다. 북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 지역에서 두루 인기를 끌며 아이튠즈 월드와이드 차트도 장악했다. ‘본 핑크’ 역시 미국과 영국을 포함해 54개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미국 빌보드는 “‘첫다운’은 클래식 음악과 블랙핑크의 힙합 영역이 어우러져 이들 작품 중 가장 통쾌하고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는 곡 중 하나가 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롤링스톤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걸그룹이 큰 영향력을 가진 음악과 맹렬한 로큰롤 성가를 전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성과와 호평에 힘입어 ‘빌보드 200’에서 이들이 어떤 성적을 기록할지 기대 섞인 관심을 모은다. 블랙핑크는 2020년 1집 ‘디 앨범’으로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ly@donga.com

“국가 이미지 훼손” “표현의 자유”... ‘수리남’ 갑론을박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서 활동한 한국인 마약왕 다뤄
현지 정부, 제작사에 법적 대응 시사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이 글로벌 인기를 높여가는 가운데 극중 배경이 된 남미 국가 수리남의 실제 이미지와 관련한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수리남 정부가 현지에서 활동한 한국인 마약왕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가 자국의 이미지를 실추·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기 때문이다. 수리남 정부는 ‘수리남’ 제작사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알버트 람딘 수리남 외교·국제 비

즈니스 국제협력 장관은 ‘수리남’이 “부정적 이미지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해 온 수리남을 마약국가로 묘사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제작사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넷플릭스와 제작사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새삼 일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배경을 가상 국가로 설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한 것은 국가적 결례다”는 의견과 “실화를 기반으로 한 작품이니만큼 문제 될 것 없다”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수리남 현지 국민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드라마 이야기가 곧 우리의 현실”이라는 일부 수리남 누리꾼의 반응 속에 글로벌 영화 DB

사이트 IMDb에는 “드라마가 수리남을 나쁜 국가로만 묘사했다. 수리남 국민으로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등 주장도 오른다.

논란에 대해 드라마업계는 “창작물은 창작물로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콘텐츠의 양적·질적 발전을 위해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내놓는다. 김현식 대중문화평론가는 18일 “‘수리남’은 현재가 아닌 1980~90년대를 배경으로 한 만큼 현재 수리남의 지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케이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면서 표현의 방식과 관련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 평론가는 18일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제3세계나 약소국은 미디어가 만든 이



하정우(왼쪽)와 황정민이 주연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이 수리남 정부로부터 “국가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미디어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관련 표현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5년 미국 공포영화 ‘호스텔’이 슬로바키아 여행을 살인하고 고문한 범죄조직 이야기를 다룬 이후 슬로바키아 정부가 자국 관광사업에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오늘 같은 밤이면’ 가수 박정운 지병으로 별세



故박정운

‘오늘 같은 밤이면’으로 유명한 가수 박정운이 17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57세.

18일 가요계에 따르면 고인은 간경화와 당뇨로 인한 몸 상태가 악화해 간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서울아산병원에서 끝내 세상을 떠났다. 1989년 1집 ‘후, 미?’(Who, Me?)로 데뷔한 박정운은 1990년 오석준·장필순과 함께 발표한 앨범 수록곡 ‘내일이 찾아오면’으로 인기를 끌면서 주목받았다. 미국에 있는 아내와 딸 등 유족은 18일 밤 입국한다. 빈소는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차렷예정이다. 발인은 21일이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내의 건강 타당포인트 리턴업

Returnup

뼈, 관절, 에너지를 3층으로 탄탄하게

리턴업 관절케어 스페셜 MSM

관절과 연골의 구성 성분 MSM(엠에스엠)

MSM(엠에스엠)은 관절의 연골, 연골조직, 뼈 등을 구성하는물질입니다. 기능성 원료인 MSM(엠에스엠)은 우리의 관절과 연골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성이 인체적용시험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관절 및 연골 건강기능식품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관절 및 연골 건강기능식품인 리턴업 관절케어 스페셜 MSM은 식약처 1일 권장섭취량 2,000mg를 충족하는 MSM(엠에스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루 4정으로 뼈, 관절, 에너지까지 케어

리턴업 관절케어 스페셜 MSM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뿐만 아니라, 뼈 건강과 일상의 활력을 위해 1일 권장량을 100% 충족하는 비타민B2와 비타민D가 들어있습니다.

건강 기능식품

5+1 5개월분 구매 시 1개월분 추가 증정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까지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원: (주)노바비스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원: 씨제이웰케어㈜

CJ웰케어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031-9988